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6월 13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 13일~6월 10일 모든 연령대 학생 참가 신청·현장 접수도 가능

가천길재단(설립자 이길여)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초여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제12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인 군산대(초등학교)에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후 매년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학생과 가족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가족축제 자리매김했으며, 가천길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성장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가천문화재단 누리집(www.gachon.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온라인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대회 당일인 6월 13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대회는 6월 13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도회지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저학년(유아부, 초등학교 1~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으로 구분해 배부된다. 참가자는 물감, 붓, 크레파스, 돗자리 등 개인 준비물을 지참하면 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된다. 수상자는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4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10월 중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위원장상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북 지역과 수도권에서 특별전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 도시에서도 순회 전시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063-731-2186) 또는 가천문화재단 사무국(032-833-41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제12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포스터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8)

뫼! 문둥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이름 좀 망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문 밑으로 슬그머니 달걀 꾸러미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순옥은 배다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어이쿠!" 갑자기 문이 열려서 놀란 남준은 뒤로 밀려넘어지고 말았다. "어머!" 새벽이었고 아직 날이 환하게 밝지는 않았지만 바로 코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었다. 남루한 옷에 얼굴의 반 이상이 고목나무의 껍질처럼 오돌토돌했고 손도 얼골과 비슷했다. 남준은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불편한 무릎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얼른 뒤돌아서 도망치듯 달아났다. 순옥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겁먹은 눈으로 남준이 뒤뚱거리며 도망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 "언니, 이를 어떻게 해!" "왜 그러는데 그래?"

아니길 바라는 마음 또한 있었다. 남준이 문둥이가 되었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명희 자신이 맹인이 된 것만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가족 전체를 잃었다. 두 사람만 살아 서로에게 향한 젓값을 치르려고 천형을 받듯 맹인과 문둥이가 되었던 것인가. 순옥은 달걀 꾸러미를 손으로 잡지도 않고 막대기로 슬슬 밀어서 밖으로 쳐내버렸다. "언니, 그나저나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옮기기도 한다면 어휴!"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지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팔을 쓸어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명희는 순옥의 호들갑에도 온통 남준 생각에 멍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순옥은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명희가 궁금한치 슬쩍슬쩍 명희의 눈치를 봤다. "언니는..... 문둥이가 가져온 달걀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문둥이를 무시위하다니....." 명희의 목소리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평온했다. "그렇지만 무섭잖아요. 전염될까 봐요." "신령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뭐가 무서워. 문둥병을 옮아오는 것도 다 신령님의 뜻인 게야!" "역시 언니는 도가 높은 무당임에 틀림이 없어요. 나는 아직 떨었나 봐요. 호호호." "다음에 또 달걀을 가져오거든 나무라지 말고 고맙다고 해야 한다." "알았어요." 명희는 집을 찾아온 내병환자가 남준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남준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졌고 두 마음은 심하게 충돌하여 싸웠음으로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이 전하는 자비·나눔 가치

국립민속국악원, 27일 국악콘서트 '다담' 이야기 손님 출연



와 나눔의 가치를 전한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 '사찰음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음식입니다'를 주제로 사찰음식에 담긴 자연의 순리와 생명 존중, 자비

국악 공연으로는 판소리 흥부가 중 '음식 차리는 대목'에서 부자가 된 흥보 집을 찾아온 놀부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차리는 장면으로, 다채로운 음식 묘사와 판소리 특유의 해학을 느낄 수 있으며, 공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전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다담'은 사찰음식의 철학과 판소리 속 음식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라며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삶을 돌아보고 국악이 전하는 따뜻한 정취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영화 상영 프로그램 '토마토 무비데이' 운영

상영영화 소개	
5. 30. 19:00~21:00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이 사랑의 기쁨과 두려움의 나뭇잎을 사운드트랙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6. 27. 19:00~21:00	영 종말이 임박하는 노년 평안 마을에 풍문 풍문 도는다는 이야기
7. 25. 19:00~21:00	말미암아 A&S 공작이 함께 하는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
8. 30. 19:00~21:00	언더 하이츠 누가 먼저 깨어나야 할지 고민하는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9. 19. 19:00~21:00	위대한 쇼맨 소속사의 인간적 면모를 담은 위대한 쇼맨의 이야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상영 프로그램 '토마토 무비데이'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진 문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영화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영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익산소리문화의숲 2층 소리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관람객은 상영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원하는 좌석을 직접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상영작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영화들로 구성됐다. '사운드 오브 뮤직'과 '영', '말미암아', '인 더 하이츠', '위대한 쇼맨' 등이 순차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1편당 3,000원이며, 5편을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구독권도 함께 운영한다. 구독권 예매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예매는 매월 상영일 기준 일주일 전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